

페퍼저축은행, 전 구단 상대 승리·4위 도약 이룰까

오늘 IBK 상대 최종 라운드 돌입
IBK·도로공사·GS와 중위권 각축
정규리그 우승 흥국에 유일 전패
하혜진·이원정 복귀 최정에 전력
장소연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

창단 이후 최다 승리와 승점 기록을 나날이 경신하며 사상 첫 10승에도 성공한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올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한다. 기세를 몰아 전 구단 승리를 달성하고, 4위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퍼저축은행은 28일 오후 7시 화성종합경기타운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를 상대로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최종 6라운드를 시작한다.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3월3일·광주), GS칼텍스 서울Kixx(7일·서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11일·광주), 정관장 레드스파크스(14일·대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18일·광주)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

페퍼저축은행은 5라운드까지 10승 20패로 승점 31점을 적립하며 6위를 기록했다. 창단 이후 최다 승리(종전 2022-2023·2023-2024시즌 5승)와 승점(종전 2023-2024시즌 17점)을 모두 넘어섰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28일 오후 7시 화성종합경기타운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를 상대로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최종 6라운드에 돌입한다.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이 지난 1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맞대결에서 시즌 10승을 달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직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페퍼저축은행은 IBK기업은행(12승 19패·승점 37)과 한국도로공사(12승 18패·승점 35)에 각각 6점, 4점을 뒤져 있다. 또 GS칼텍스(8승 23패·승점 27)에는 4점을 앞서 있어 최고 4위에서 최저 7위까지 위치가 바뀔 수 있다.

또 구단 사상 첫 전 구단 상대 승리라는

목표도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GS칼텍스에 3승, 현대건설과 정관장, 한국도로공사에 2승, IBK기업은행에 1승씩을 챙겼다. 유일하게 흥국생명에게 5전 전패를 떠안았는데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면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완성하게 된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모든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감독은 “미

디어 데이에서 목표로 밝혔던 10승을 달성했지만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11승부터 16승까지 모두 열려 있다.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하면 승점이 쌓이고 순위도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이 조금이라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와 마지막 맞대결의 중

요성이 크다. 승점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맞대결에서 패배할 경우 격차를 극복할 기회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봄 배구 진출 팀이 모두 가려졌다는 것도 페퍼저축은행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역대 최다인 올 시즌 다섯 경기를 남겨놓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으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정관장(21승 10패·승점 58)과 현대건설(18승 12패·승점 57)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다. 정규리그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을 초과할 경우 준플레이오프가 개최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봄 배구 대진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최종 순위를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은 봄 배구 탈락이 확정됐지만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주전과 백업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분명하고, 네 시즌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실하다.

부상으로 2개월 가까이 이탈했던 미들블로커 하혜진과 세터 이원정이 복귀한 점도 긍정적이다. 하혜진은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와 5라운드 최종전에서 부상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플레이세트를 소화했다. 이원정 역시 같은 날 2세트에 교체로 투입된 뒤 3세트부터 5세트까지 스타팅으로 기용됐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2025유소년 꿈나무수영대회 전남 수영 꿈나무 우수 성적 금 5·은 2·동 2개 획득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2025 유소년 꿈나무 수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사진)

27일 전남체육회와 전남도수영연맹에 따르면 전남 수영은 지난 23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폐막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박지윤(빛가람초 4)이 여초부 접영 50m에서 35초43의 기록으로, 자유형 50m에서도 33초23으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승주(빛누리초 4)는 남초부 자유형 100m에서 1분09초9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소윤(빛가람초 6)은 여초부 평영 50m에서 41초 63으로, 김윤지(대성중 1)는 여중부 배영 100m에서 1분19초75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제현(빛누리초 4)이 남초부 평영 100m 은메달(1분35초43)과 평영 50m 동메달(43초19)을 수확했다.

박소윤(빛가람초 6)은 여초부 평영 100m 은메달(1분31초88)을, 박서형(라온초 2)이 남초부 평영 50m 동메달(46초 62)을 각각 거머쥐었다. 최동환 기자

2027년 전남도체육대회 고흥서 개최

도체육회 제58차 이사회서 확정 전남태권도협 정회원 단체 승격

2027년 열리는 제66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고흥군에서 개최된다.

2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제58차 이사회를 열고 2027년 제66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에 심의 및 의결해 고흥군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66회 전남도체육대회는 고흥군 한 곳만 유치 신청했다. 전남도체육회 종합체육대회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고흥군 현장실사를 통해 유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실사 결과 고흥군의 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날 이사회에 상정돼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고흥군은 지난 2008년 제47회

대회 이후 17년만에 전남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또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종목단체 임원 인준 결과 등 12건의 보고사항 △임원 보선 △각종 제규정 개정 △전남태권도협회 정회원단체 승격 등 10건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어 열린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선정 결과 등 18건의 보고사항 △정관 개정 △전남태권도협회 정회원단체 승격 등 6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전남태권도협회와 전남태권도연합회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한 전남태권도협회는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정회원단체로 승격됐다.

이번 승격으로 전남태권도협회는 전남도체육회 대의원자격을 갖게 됐고, 체계

광주 검도, SBS전국검도왕대회 3명 입상

서석고 강현우 고등부 준우승 옥하준 중등·이영광 초등 3위

광주 검객 강현우(광주서석고 3)와 옥하준(광주서석중 3), 이영광(고실검도관) 등 3명이 2025 SBS배 전국검도왕대회에서 우수 기량을 선보이며 입상했다.

강현우는 지난 25-2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고등부 결승에서 함윤찬(경기과천고)을 상대로 선취득점하며 선전했지만 2점을 내주며 1-2로 저 준우승을 차지했다.

옥하준은 중등부 준결승에서 박효관

(인천상인천중)과 접전 끝에 패하며 3위에 머물렀다.

이영광도 초등부 준결승에서 김민준(경남 사천검도관)에게 0-1로 져 3위를 차지했다.

남태운 광주검도회 전무이사(서석고 코치)는 “강현우가 오는 3월 춘계중고검도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전국대회와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강현우를 비롯한 광주 검도선수들이 올 한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체육회 이사진들이 지난 26일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제58차 이사회를 열고 전남 체육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면서 태권도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역 태권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총회 종료 후 2024년도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선발된 78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이사회

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남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제6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전남태권도협회의 정회원단체로 승격된 것은 전남 체육계에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역 체육 활성화와 종목별 발전은 물론 체육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무안군청 검도, 동계 전국실업대회 단체·개인전 석권

단체전 결승서 부천시청 2-1 제압 김병훈 3단부 개인전 우승...2관왕

무안군청 검도팀이 2025년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석권했다. 무안군청 검도팀은 지난 21-24일 전북 남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부천시청을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군청은 32강전서 충남체육회를 2-1로, 16강전서 구미시청을 3-2로, 8강전서 인천시청을 4-2로, 준결승전서 울산시청을 4-2로 연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무안군청은 결승서 치열한 승부 끝에 김한범이 손목치기로 김승겸(부천시청)에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병훈은 개인전(3단부)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김병훈은 결승에서 배준영(인천군청)을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퇴격머리로 선취점을 올린 뒤 손목치기로 마무리하며 2-0으로 승리, 생애 첫 전국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광철 무안군청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승으로 보답받기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동환 기자